

손 잡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지지자 통합 이룬다

송영길-최강욱 대표, 당 대 당 통합 이재명 후보 지지율 상승효과 기대 “큰 민주당 만드는데 같은 견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 당 통합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 상승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통합 협상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의 통합은 지지자 통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너지가 작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 협상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사실 정책과 노선, 이념에 있어 큰 차이 없는 정당”이라며 “지난 총선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로 다른

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했지만, 작은 차이를 극복해 큰 민주당 만드는데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언론의 분석에 따라 이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고 선대위 지지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선 구도 개편기”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도 선대위에 인사들을 포함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할 세력을 통합·연대하려 노력하고, 구도를 넓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는 개별인사 영입 방식도 있지만, 당 대 당 통합이 더 크다”며 “열린민주당이 한 때 지지율 7%가 나온 정당이기도 하고, 대선 시기에 2~3%는 결코 작은 지지율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활성화되는 계기와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협상대표에 따르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방식은 ‘당 대 당 통합’, ‘흡수 통합’ 등 양 당의 협상을 통해 정해질 방침이지만, 당 대 당 통합이 유력해 보인다. 우 협상대표는 양 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통해 지지자들의 통합도 같이 이룰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에 따르면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할 때에는 전국 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어 통합을 위한 합당 결의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선거에 참여한 중앙위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결의하고 합동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우상호 협상대표는 “원론적으로 협상대표단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한다는 입장”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한 통합인 만큼 시기를 미루는 건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열린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로, 우리는 최고위를 열어봐야 알 것 같다. 절차상 장애물은 없어 최대한

빠르게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 이외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나 같은 진영 후보 통합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다른 세력과의 연대 추진은 위임받은 바 없다”며 “거론은 적절치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큰 민주당의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지율 상승효과와 관련해서는 “두 당의 지지층이 나뉘어 있어 당 대 당 통합은 경선처럼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1+1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 교착 상태인 대선에서 타개책 중 하나로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의 급상승은 기대하지 않지만, 경험의 결과로 지금보다는 상승효과는 있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한반도 비핵화’에 과거사 문제 걸림돌

한일 갈등에 한·미·일 공동회견 무산 北 핵미사일 위협 대처 의지 재확인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가 끝난 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단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공조하며 풀어나가는 모습이다. 지난 7월에 이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미·일 세 나라는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 공동의 약속’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한·일 과거사 문제로 인해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면서 비핵화 논의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세계 보건안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공급망 회

복 ▲기후위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은 공동의 변명, 안보 및 가치 증진 차원의 다자 파트너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구조에서 아세안(ASEAN)이 안정성·경제적 기

회·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 차원의 공동 약속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위협에 대처하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현시점의 종전선언에 동의하는지 관련 질문을 두고도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한·미·일 간 그리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좋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국민 만나는 文... ‘코로나·부동산’ 입장 낸다

21일 오후 7시부터 ‘국민과의 대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위기와 관련한 방역 및 재난지원금, 정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양한 현안 관련 답변을 준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300명의 국민과 대화에 앞서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3주 평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의료 ▲민생·경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과제 등 주제별 질문에 대한 백데이터를 직접 챙기며, 그간 행보에 대한 소회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17일)부터 공개 일정 없이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KBS에서 오는 21일 오후 7시부터 100분간 진행할 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2년만이다.

임기 6개월이 남은 가운데 국민과 직

접 대화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위기와 관련한 방역 및 재난지원금, 정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이후 취임 4주년을 맞은 올해 5월 기자회견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한 뒤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부채 관리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영훈 기자

대선 후보 지지도... 尹 36% 李 35%

두 후보 격차 1%로 줄어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이 지지도 격차가 1%차로 줄어든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30.2%,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윤석열 후보는 36%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35%로 윤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을 벌

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7%에서 1%로 줄어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5%,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4%,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한 응답은 18%를 기록했다. /박태홍 기자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효율 성능 차이 커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의 밝기와 광효율이 제품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밝기(광속), 광효율, 연색성, 수명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시험 평가된 제품은 루미트론, 리벤스룩, 번개표, 쏘빛, 시그마LED, 오스람, 탐룩스, 필립스(가나다순) 제품들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윤석열-김종인 불협화음... 영입 이견차

김병준·김한길 영입 놓고 갈등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전날(17일) 있었던 김종인-윤석열 회동 여부에 대해 둘의 의견이 갈린 데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 영입을 놓고도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회동 사실을 알린 윤석열 후보 측의 공식 발표와 달리 윤 후보와의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하루 종일 혼자 있었다”며 선대위 구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병준 명예교수 영입 질문에 침묵을

지키던 김 전 위원장은 김한길 전 대표 영입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위원장은 “예를 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인물만 몇몇 가져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얹어 놓으면 통합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도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해봤는데, 결국엔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해결해야 국민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선대위와 별도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김한길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회동을 하고 같은 날 저녁을 김 전 대표와 함께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